

# 그 시절 '정미소'에 담긴 아스라한 추억들

새로 나온 책

## ●국립민속박물관 '정미소: 낱알에서 흰쌀까지' 조사보고서 발간

곡물을 도정하는 공간인 정미소. 먹을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흰쌀이 도정기에서 쏟아져 나오던 정미소는 풍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식생활 변화로 인해 근현대 농촌의 경관을 구성했던 정미소는 사라지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삶은 추억이 됐다.



### 인류 역사 속 곡식 가공부터 도정 문화 변천과정 등 수록

정미소에 얽힌 한 국민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정미소: 낱알에서 흰쌀까지' 조사보고서다.

우리나라 도정 방법의 변천, 근대 이후 등장한 정미소의 정착과 발전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쇠락하게 된 현재 모습까지. 정미소를 중심으로 풀어낸 한국의 도정 문화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정미소와 이에 얽힌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서에 담아냈다.

◇인류의 역사 속 곡식 가공  
곡식을 도정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라 점차 발전해왔다. 갈돌과 갈판, 절구와 같이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가축이나 물의 힘을 빌리는 연자매, 물레방아를 거쳐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는 도정기까지. 도정 도구는 적은 노동력으로 대량의 곡식을 찧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왔고, 도정 도구와 도정 방식의 변화는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미소는 19세기 말 미국 반출을 위한 근대 산업으로서 미국향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도정 성능의 우수함, 노동력 및 소요시간 절감 등의 장점에 힘입어 이내 곧 농

촌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빠른 속도로 전통적 도정 도구를 대체했다. 식량증산 정책의 시행, 쌀 생산량 증가, 기계의 개량 등과 맞물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는 정미소가 약 2만5천개가 존재했다.

◇소멸돼가는 정미소의 기록  
정미소는 우리나라에 도입 이후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흥망성쇠를 겪어왔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도정 방식에서 정미소로 변화했고, 근대의 산물인 정미소가 우리 삶에 정착하는 과정은 식량증산 정책이라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해왔다.

오늘날 정미소는 미국종합처리장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도입, 식생활의 변화 그리고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듯 정미소는 전통적 방식으로 방아를 찧던 때와 자동화 양곡가공공장이 주류가 된 때 사이 존재하던 것으로, 근현대 한국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매개체다.

이번 보고서는 정미소에서의 도정 과정과 방법, 도정 기계와 도구의 사용과 발달, 운영 방식 등 정미소가 점차 사라지면서 함께 소멸돼가는 생활문화를 총괄해 기록했다.

◇정미소의 과거, 현재, 미래



곡식을 찧 정미소 주인의 손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미소가 존재했다. 쌀 생산량이 지금 같지 않았던 1970년 대만 해도 보리를 도정하는 정맥기가 정미기와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고, 밀을 재배하던 지역에서는 제분기를 갖춰 밀가루를 가공했다. 수수, 메밀, 옥수수 등 잡곡을 많이 섭취하는 산간지역 정미소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잡곡 방아도 취급했다. 정미소에서 떡방아 기계를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으며, 떡을 만드는 '방앗간'과 곡식을 도정하는 '정미소'가 엄격히 구분된 것은 오히려 근래의 일이다.

농업 다각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되고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까지 줄어들면서 많은 정미소가 수익 저하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다. 정미소가 버만을 도정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도 정미소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후다.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일반적인 농촌 정미

소에 더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지금은 보기 어려운 형태의 정미소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정미소가 사라진 후 그 역할을 대체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과 가공용 도정기의 사용 사례를 조사해 현재의 모습을 살피고, 도시의 즉석도정 쌀가게, 폐정미소 활용 사례를 통해 정미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미래상을 그림으로써 정미소를 둘러싼 한국인의 생활상을 풍부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그 시절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정미소를 접한 적 없는 세대에는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 ▲문화통plus 2024 봄호

이번 호는 지형원 발행인의 에디터 레터 '아부다비 루부르, 광주 루부르'를 시작으로 전라도문화수수께끼 전북 진안군 만취정 '황룡오리출상원도'의 비밀을 다룬다. 장기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2일'에서는 이성계의 형인 전주이씨 완풍대군과 양도공 증가가 있는 영광군 묘량면 당산마을의 부조묘 제사 600년, 외손봉사 500년 역사를 담았다. 또 한자리에서 60년 동안 이발을 해온 광주 북구 제일이발관 흥남표 웅 이야기와 노래하는 상쇠 김태훈 스토리가 흥미롭다. 해외취재 베트남 다낭 이야기, TV조선 '미스트롯 3' 화제의 인물 이야기도 담았다. 이밖에도 조용현 칼럼, 노영대 변호사의 노변한담, 음식 칼럼니스트 조정일의 설렁탕 이야기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광주문화발전소



## ▲하녀-소영현 저자

여성과 노동자, 하위자에 대해 꾸준히 의미 있는 글을 써온 소영현이 이번에는 '하녀'에 주목한다. 신문기사부터 문학 작품까지 심층 아카이빙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존재해온 하녀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들의 면면을 연대기처럼 읽어낸다. 가부장제와 계층 문제뿐 아니라 섹슈얼리티, 근대화, 감정노동 및 그림자노동까지 꼼꼼히 살펴 그동안 배제되고 낙인 찍혀온 하녀의 존재를 제대로 마주하게 하고 2세기에도 또다른 이름으로 계속되는 '하녀'의 삶을 밝힌다. /문학동네·1만8천원



## ▲어둠 속 촛불이면 좋으련만-장석주 저자

장석주 시인의 '어둠 속 촛불이면 좋으련만'은 66편의 문장을 소개한다. 이 책은 시인의 막장에서 꺼낸 문장들, 권태와 느꼈던 심정에 화살처럼 박힌 문장들, 두개골을 빼낼 듯 울림이 컸던 문장들을 모았다. 이 문장들은 생의 경이와 기쁨을 맞보게 해준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이 내면 형질을 바꾸고, 비루함의 바다에서 시인을 끄집어냈다. 그러면서 누군가 발견해주기를 바라는 문장이나 탄성을 지를 만큼 아름다운 문장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세상의 문장들에 바치는 오마주라고 말한다. /인물과사상사·1만9천원



## ▲지금부터 하면 돼!-이성희 글, 김푸른 그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양한 일을 하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다시 잠리에 든다. 그러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만든다. 하루의 생활을 탄소발자국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꾀하는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다. 탄소발자국과 환경, 기후 관계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해봐야 한다. 함께 연대해 실천한다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초록별 지구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지킴이로 살아간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한권의책·1만6천원

## 일상 속 아름다운 말길... '한글'로 잇는 마음·생각

### 말꽃지기 최종규 에세이 '우리말꽃'

우리가 쓰는 말 안에 우리가 바라거나 누리는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슬기롭게 가다듬은 말은 주변을 돌보고 가꾸며 사랑을 꾸리는 힘을 품는다. 삶이 고스란히 말이 된다. 그렇기에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말은 소리뿐만 아니라 뜻, 마음도 함께 담는다. 가령, 우리말 '말'과 '마음', '말다'와 '말'은 말밭이 같다. 우리말 '이야기'와 '잇다', '있다'와 '이다', '이제·이곳'은 말밭이



같다. '바라보다'와 '바라다', '바람·바다', '밭·바탕·밖', '밝다·밤'도 말밭이 같다. 마음을 물처럼 맑게 나타내기에 '말'이며, 서로 말을 이어서 이제 이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인 말하기에 '이야기'인 것이다. 서른세 해에 걸쳐 우리말사전을 돌봐온 최종규가 쓴 '우리말꽃(꽃간편)'이 세상에 나왔다.

저자에게 우리말사전 쓰기는 말과 글과

마음을 돌보는 일하기에 그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말을 모으고 살피며 가꾸었다.

우리말사전을 쓰고 있으면서 배우고 익힌 삶, 살림, 사랑으로 빛은 50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우리말꽃'은 '우리말을 꽃피우자'는 뜻이자 '우리말 꽃씨를 심자'는 의미다.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누리자'는 뜻을 품은 책이다. 훈민정음(세종대왕)부터 한글(주시경)에 이르기까지 배움말(학술) 열거리뿐 아니라 나고 자란 인천에서 익히 들은 바닷말, 고

흥으로 삶터를 옮긴 후부터 늘 아이와 함께 누리는 숲밭, 이 나라 곳곳을 누비며 거의 모든 한자말에 둘러 묻혀가나 잊힐 뻔한 한자에서 캐낸 말과 글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돌봄이이자 말꽃지기(사전편찬자)인 최종규는 오늘도 매만지며 돌본 말과 글에 하나둘 갈래를 나누고 세우는 일을 이으며 사랑과 살림에 맡겨놓아 되기를 바란다.

저자는 "모든 말은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맞는 사이라면 말이 없어도 서로 알아 볼 뿐 아니라 즐겁다"며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가다듬고 눈망울을 빛내는 '말꽃씨'를 즐겨 이 품고서 아름다이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